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featuring a stylized flame or wave shape in blue, green, and purple, with the text 'JEJU 1952' and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round it.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현 정

2010년 8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 태 수

김 현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김현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8월

< 국문초록 >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김 현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¹⁾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2.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3.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간에는 상관이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자료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70명을 무선표집하여 실험집단 35명과 비교집단 35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에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험집단에만 매주 1회 60분씩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한국집중력센터(2008)에서 개발된 주의집중 능력검사(Concentration Ability Test)의 6단계 중 청각부분에서의 주의집중력을 측정하는 청각집

1) 본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중력 검사와 송호연(1999)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공감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검사의 하위요인은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으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활용하였으며, 사전 사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그 하위영역을 향상시킨다.

셋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초등학생은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일부 하위 요인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의 주의 깊게 듣는 청각집중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능력이 향상되어 학교에서의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5
1. 청각집중력의 개념과 특성	5
2. 공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9
3.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의 관계	16
4.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의 구성	20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대상	24
2. 실험설계	24
3. 연구절차	25
4. 측정도구	27
5. 자료처리	28
IV. 연구결과 및 해석	29
1. 연구 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29
2. 가설 검증	30
V. 요약, 결론 및 제언	38
1. 요약	38
2. 결론	40
3. 제언	41
참고문헌	42
Abstract	48
부 록	51

표 목 차

<표Ⅲ- 1> 연구의 진행절차	25
<표Ⅲ- 2>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	26
<표Ⅲ- 3> 공감능력 척도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28
<표Ⅳ- 1> 집단 간 청각집중력 사전검사 비교	29
<표Ⅳ- 2> 집단 간 공감능력 사전검사 비교	30
<표Ⅳ- 3> 집단 간 청각집중력에 대한 분석결과	31
<표Ⅳ- 4> 집단 간 공감능력에 대한 분석결과	32
<표Ⅳ- 5> 집단 간 공감능력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34
<표Ⅳ- 6> 실험집단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상관분석 결과	37

그 림 목 차

[그림Ⅲ- 1] 실험설계	24
[그림Ⅳ- 1] 사전·사후 청각집중력 변화	31
[그림Ⅳ- 2] 사전·사후 공감능력 변화	33
[그림Ⅳ- 3] 사전·사후 관점수용 변화	35
[그림Ⅳ- 4] 사전·사후 공감적 관심 변화	35
[그림Ⅳ- 5] 사전·사후 정서적 공명 변화	3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주의 깊게 듣게 되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공감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핵심적인 통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감능력의 부족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집단따돌림 현상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부적응 하는 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다(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2). 이러한 부적응 아동들은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가출, 비행, 학교폭력 현상들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교실에서 보는 초등학생들을 보면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싸우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송호연, 1999).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이 친구들과의 갈등상황에 놓였을 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수용할 줄 아는 공감능력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초등학생은 정서적 발달에 기초를 다져 나가는 시기로, 부모와 가족중심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친구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오정아, 2005). 초등학생들이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듣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집중력센터(2008)에 의하면 청각집중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인 경우 친구가 무슨 말을 할 때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친구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다. 반면에 청각집중력이 높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친구도 많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집

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더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명경(2008)은 청각집중력이 부족하면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말보다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대화의 초점을 잃게 된다고 하였으며, 대화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주의가 분산되어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정보가 많아지게 되고, 타인의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렵게 되므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소외되기 쉽다. 이로 인해 친구들과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게 된다. 즉 청각집중력은 초등학생들의 듣는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듣기를 통한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습관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 훈련은 필수적이다.

청각집중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장희(2004)의 연구에서는 청각 기억훈련을 통한 학습부진아의 기억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희정(2002)은 청각적 이미지 활용을 통한 창의적 글쓰기에 연구에서 청각을 통해 음악을 듣고 글쓰기를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 이는 처음에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몰랐던 학생들도 음악을 들으며 몇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집중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김미숙(2008)은 이야기 듣기를 통한 의문사 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아동의 청각적 언어 이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청각집중력 훈련은 아동의 기억력과 집중력의 효과가 있으며, 학습부진 아동 및 청각장애 아동과 같은 특수아동에게도 청각적 언어 이해 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각집중력은 공감능력과 관련이 깊다(신정희, 2003). 아동들이 친구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집중해야 한다. 물론 언어 이외에 다양한 얼굴표정과 몸동작으로 표현되는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상대방의 언어를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공감적 이해로 안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공감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강석순(2004)의 연구에서

공감은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동기를 강화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오정아(2005)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김진아(2009)은 독서요법을 활용한 공감훈련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증진되어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한정운(2009)은 사랑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긍정적 사고가 증진되어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관한 상관연구를 살펴보면, 신정희(2003)는 아동들의 듣기 과정을 통해 주의를 집중하여 경청태도를 습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 심형택(1989)은 적극적으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활동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수용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진은주(1999)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듣기는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타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청각집중력은 아동들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연구되었지만, 청각집중력을 높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ADHD와 학습부진 아동과 같은 특수 아동에 관한 청각훈련 및 주의집중력 향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는 반면 일반 아동의 청각집중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각 자극을 통해 집중력을 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특정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청각집중력과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감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2.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3.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간에는 상관이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과 받지 않은 비교집단간에 청각집중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과 받지 않은 비교집단간에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과 받지 않은 비교집단간에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청각집중력의 개념과 특성, 공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의 관계,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의 구성을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청각집중력의 개념과 특성

1) 청각집중력 개념

청각집중력(concentration)은 영어로 리스닝(Listening)이라고 하는데 원래 라틴어의 lis(ear), '귀'라는 단어와 ten(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라틴어의 표현으로 '귀로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정의한다(김근중, 2006).

사전에서 살펴보면 청각집중력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스스로 귀 기울여 올바르게 듣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정신의학에서 청각집중력은 '받아들인 외부자극에서 중요하다고 선택되어진 자극에 집중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은 정보처리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정보가 동시에 직면하게 되면 필요한 정보들만 선택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무시하게 된다(백성미, 2009). 박기영(1999)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환경 속에서의 우리는 그 중 한 사람의 목소리를 쉽게 구분하여 그 사람의 말에만 듣고 인식한다고 하였다.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중에도 인간은 그 중 관심 있는 하나의 음성만을 골라서 듣는 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각을 통한 '선택적 주의집중(Selective Attention)'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집중력센터(2008)에 의하면 청각집중력이란 특정 소리를 선택적으로 수용

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뜻하며,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청각적으로 주어지는 지시에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이 청각집중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신민섭(2009)에 의하면 청각집중력이란 오감 중 소리에 집중하는 능력으로 언어적으로 주어지는 지시를 잘 듣고 그 지시에 따른 행동을 알맞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명경(2008)은 청각집중력이란 어떤 방해요소에도 교란되지 않고 듣고자 하는 소리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각집중력이란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여 듣고 그들이 전달하려는 것을 기억하는 과정으로 여러 자극 중에서 중요하다고 선택된 것에 대한 집중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말한다.

2) 청각집중력의 특성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주의지속시간(attention span)은 길어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도 선택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특정한 사물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도 연령증가와 함께 개선이 된다(장휘숙, 2000).

어린 영아들은 여러 개의 자극 중 하나의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고 다른 자극은 무시하는 선택적 주의집중 능력이 결여 되어 있다. 그러나 연령증가와 함께 영아의 주의를 선택적으로 변화하고 2세 경에 이르면 무엇을 집중하고 무시해야 하는 가를 알기 시작한다(Ruff & Rothbart, 1996). 이 시기에는 7분 정도의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동화책을 읽어주는 동안에는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아동들의 집중시간이 10분을 넘기는 시기는 대체로 4세 이후이다. 이때부터는 비교적 오랜 시간 선택적으로 하나의 대상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치원이나 놀이방에 다니는 5~6세 아동은 선생님의 설명이나 지시를 듣고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략 12분 정도의 주의집중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정옥분, 2002).

초등학교 연령에 이르면 아동들은 보다 더 선택적으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며 점차 방해자극은 무시하면서 목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도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장

휘숙, 2001). 그러므로 초등학생은 성장에 따라 특정한 사물에 대한 선택적 주의 능력이 증가되어 선택된 자극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청각집중력이 향상 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을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청각집중력이 낮은 초등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 청각집중력이 낮으면 한자리에서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 적고 산만하며 충동적이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아동들을 주의력결핍이나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으로 ADHD라 부르며 현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듣는 힘'의 저하가 그 원인의 하나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청각집중력 부족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대인관계의 손상, 그리고 일상적인 일의 수행 곤란 등을 초래한다(Lara Honos Webb, 2008). 문장원(2008)은 이런 특성을 가진 아동들은 학습장애 및 또래집단과의 부적응, 낮은 자아존중감, 정서적 불안 상태에 이르기도 하며 대인활동이 많아지고 넓어지는 초등학교 시기에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각집중력이 부족하게 되면 작은 소리에도 분산이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정보가 많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되물어야 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어 정서적으로 위축이 된다(최정금, 2008). 청각집중력이 취약하면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적고 금세 싫증을 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다른 사람의 대화에 잘 끼어든다거나 상대방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답변을 하는 것도 청각집중력 부족에서 온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정확히 듣지 않아 여러 번 되묻게 되고, 지시에 따라 정확히 수행하지 못해 마치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오해 받기도 한다(신민섭, 2009).

청각집중력이 낮은 초등학생은 대화나 설명에 집중하기 못하여 수업시간에 엉뚱하고 충동적인 말로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자주 부딪힌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선 인기가 없고 이른 바 왕따로 전락하고 만다(이명경, 2008).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자존감

이 낮아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청각집중력의 결여는 초등학생의 부적응 성향을 강화하게 하고 있으며,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높인 결과 자신감의 약화와 우울증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김지연, 2007).

청각집중력이 높은 초등학생은 어떤 일을 하든지 효율성이 높아 학교나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결과 원만한 성장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해 갈 수 있다(주말선, 2007). 따라서 청각집중력은 초등학생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학교와 사회 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각집중력은 초등학생의 과제수행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각집중력이 향상 되면 과제를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다. 또한 주변의 방해 요소에도 교란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되어 선생님의 지시에 대한 수행 결과가 좋아지게 되면서 성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각집중력이 좋은 경우 외국어 습득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모르는 단어라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익숙하지 않은 발음도 정확히 듣기 때문이다(신민섭, 2009; 이명경, 2008).

청각집중력이 낮으면 주변에 사소한 자극에 쉽게 주의를 빼앗기기 때문에 주어지 시간 내에 공부를 끝내기 어렵게 된다. 딴 생각을 하거나 선생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어 금방 산만해 지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과제를 다 끝낼 때까지 반도 못 끝내고 나머지 공부를 하기도 한다.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자극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소한 자극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극에 관심을 갖게 된다. 수학문제를 풀다가도 전화벨 소리가 나면 얼른 방을 뛰쳐나오고 텔레비전 소리, 부모님의 이야기 소리 등 다양한 소리에 주의를 빼앗기게 되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이명경, 2008).

청각집중력은 학습을 통해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를 단기기억으로 전이시키는데 용이하게 하며 정보의 양을 확대시킨다. 이는 다른 데 주의를 빼앗기지 않

고 한가지 일에 집중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초점적 주의집중을 통해서 중요한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김영채, 2004; 김현진, 2001).

Erikson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의하면 아동기는 근면성 대 열등기로서 초등학생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기본적인 문화규범을 습득하게 되고 근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근면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몰두하고 끝까지 마무리 하는 능력, 즉 청각집중력과 관련이 깊다. 청각집중력이 높으면 선생님의 설명을 차분히 잘 듣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하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바로 시작한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은 일단 과제를 시작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에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끝낼 수 있고 실패가 적다(한국집중력센터, 2008 재인용).

이렇듯 학습과정과 청각집중력을 관련지어 볼 때 특정 자극이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청각집중력은 학습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초등학생의 인지발달과 학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청각집중력은 창의력과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인 초등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근면성에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따라 학습에 효율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형성하며 친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2. 공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1) 공감의 개념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는 초기 그리스 시대의 슬픔 또는 고통의 감각과 결합된 정서 또는 열정을 의미하는 "empathia"라는 단어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Barrett-Lenard, 1981). 그러나 심리학 분야에서 공감(Einfuhlung)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미학 심리학을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Theodor Lipps(1926)이다. 그에 의하면 예술작품에 의한 내적인 모방에 의해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 동일시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작품과 동일한 정서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 공감(Einfuhlung)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으며, 예술작품에 대한 공감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인간에 대한 공감까지를 포함시켰다(박성희, 1994, 재인용).

그 후, 심리치료의 방법론적인 논쟁이 한창이던 1950, 1960년대에 Rogers(1957)가 공감을 강조한 이후 이에 관한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Rogers의 공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준거틀을 정확하게, 그것을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마치(as if)라는 사실을 망각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자각하는 상태이다," ".....당신이 감지한 그의 세계를 전달해 주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하였다. 이는 공감이 상대방의 내적 세계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과 더불어 공감자와 대상자의 분리, 그리고 공감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다(권정안, 2000, 재인용).

이렇게 발달한 공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공감의 개념을 크게 인지적 관점과 정서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감을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인지적 능력으로 보는 견해와 타인의 관점을 대리해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보는 견해이다.

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감은 타인의 느낌과 행동을 이해하고 예견하는 통찰력 또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인지적 공감은 자신을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상상적으로 놓아보는 것이므로 공감을 일으키는데 인지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곽경련, 2001). 정의적 관점을 강조한 학자들로는 Chapman(1987), Bryant(1982), Barnett(1987)등을 들 수 있다. Chapman(1987)은 공감을 타인의 감정상태와 동일시 함으로써 일어나는 대리적인 정서각성이라 하였다. Bryant(1982)는 다른 사람의 감정적 경험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정서적으로 대리반응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Barnett(1987)는 공감은 다른 개인의 정서와 꼭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부합하는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정혜연, 2004, 재인용).

공감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공감을 인지 혹은 정서의 한부분에만

관련된 단일 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을 가진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Feshbach (1982)는 공감의 개념을 인지적, 정서적 양면을 포괄하는 입장에서 보았으며 공감의 요소로서 타인이 정서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역할수용 능력, 정서적 반응성을 포함시켰다. Haffman(1982)도 공감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의하면서 초기의 공감은 무의식적인 정서감염에 의한 정서의 공유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점차 초등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역할 수용의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공감은 더욱 성숙한 형태로 변한다고 하였다(강석순, 2004, 재인용).

이상의 공감의 개념을 요약하면,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인지적 관점과 타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적 관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과정으로 인지적에서의 타인의 관점 수용과 정서적인 내적 과정을 거쳐 외적으로 표현되는 다차원적인 과정이라고 하겠다.

공감과 혼동될 수 있는 유사 개념들로는 동정(sympathy), 투사(projection), 동일시(identification)등이 있다. 동정은 타자에 고통에 대해 민감성을 고조시키고,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어떤 것이든 해보려는 충동이 담겨져 있다. 반면에 공감은 타자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자기 인식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개념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공감자가 타인을 향해 뻗어간다면 동정자는 타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공감의 목표는 타인에 대한 이해인데 반해 동정의 목표는 타인의 복지이다. 요약하면 공감은 앎의 방식이며, 동정은 관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희, 2004). 또한 공감이 타인의 느낌과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인다면 동정은 공감보다는 타인의 느낌에 빠져 몰입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감과 동정은 서로 유사하지만 서로 구분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진, 2005).

공감과 구별되는 또 다른 개념인 투사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 태도 등을 타인에게에 귀인 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공감과 투사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첫째, 공감은 방향이 타인에게서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지만 투사는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향한다(Eisenberg & Strayer, 1987). 공감은 상대방의 상태가 출발점이 되는데 투사에서는 자신의 심리상태가 출발점이 된다. 둘째, 투사는 정서가 포함되지 않는 인지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감과 다르다. 셋째, 공감하는 사람은 그

대상과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라는 측면에서 투사와 구분된다(Dymond 1950). 공감적 반응은 자신과 타인이 분리된 개체 라는 분명한 인식이 발달한 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분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심정적 반응은 투사일 가능성이 높다(권정안, 2000, 재인용). 또한 투사는 다른 사람들도 나의 태도나 감정 등과 똑같은 것을 가졌다고 단정하려 드는 경향을 말한다. 자기 자신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 감정이나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타인에게 돌려버리는 것과 같은 무의식적인 마음의 움직임이다. 공감의 경우 감정 작용이 타자의 감정을 자신에게 흐르도록 함에 비하여 투사는 자신의 감정을 타자에게 흐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이성록, 2007).

동일시는 타인에 대한 정서적인 결합으로 관찰자가 모델의 일반적인 행동 형태를 모방하는 것으로 타인의 여러 가지 특징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는 공감 과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상대를 동일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감은 방어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시와 분명히 구별된다고 주장한다(권정안, 2000). 이처럼 동일시는 대상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느낌의 과정이라면 공감은 대상과의 분리가 되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대리적으로 느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공감의 개념은 동정, 투사, 동일시와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이 서로 분리되는 개체라는 것을 인식하여 무비판적인 이해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공감은 타인의 사고 및 감정을 이해하고 통찰하여 그 정서의 대리적 경험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소통 하는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공감의 구성요소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요소가 결합된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공감의 각 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공감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공감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란 공감의 정서 또는 공감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지적인 기제나 작용을 말한다(박성희, 1994). 인지적 요소를 지칭하는 주요 개념으로는 감정의 재인(emotion recognition), 역할수용(role-taking), 또는 관점수용(perspective taking) 등이 있다. 감정의 재인은 공감의 필수적인 선행 인지 조건의 하나로 상대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감정을 인지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Feshbach, 1975). 또한 Borke(1971)는 공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감정상태를 식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러한 재인식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재인식을 위해서는 언어적 내용, 상황적 단서, 비언어적 단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권정안, 2000, 재인용).

관점수용이나 역할수용에 대한 연구는 Mead(1934)와 Piaget(1932)로부터 비롯되었다. Mead(1934)는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 관점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으로 공감을 정의하여 역할수용의 측면을 부각시켰다. 역할수용을 통한 '사회적 공감'(social empathy)의 획득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반응의 대처로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였다(강은주, 2005, 재인용). Piaget(1932)는 초등학생의 미성숙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을 자아중심성과 관점수용 능력의 부족으로 설명하였다. Piaget(1932)의 인지발달단계를 살펴보면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는 7세경부터 12세까지의 시기로써 일반적으로 초등학생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초등학생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줄어들고 의사소통에서 사회지향적인 특징을 보이게 된다. 초등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친구와 어른들에게 표현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는 탈중심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다(김동일, 2007).

자아중심성의 극복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감을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서 Deutsch와 Madle(1975), Rogers(1957), Hoffman(1982)은 자타분화를 들었다. Deutsch와 Madle(1975)은 공감이 투사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과의 구별, 즉 분리성 또는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Rogers(1957)은 공감의 필수조건으로서 "마치~처럼(as if)"의 조건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분리된 존재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Hoffman(1982)

도 아동의 공감발달을 설명하면서 어린아동들은 자발적, 무의식적 대리정서 반응으로서 공감을 경험하나 점차 자신의 공감적 원천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온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어린 아동들은 자타분화에 대한 의식 없이 무의식적 정서감염에 의해 공감을 경험하나 점차 타인에 대한 인지적 감각이 발달함에 따라 보다 성숙한 공감자로 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정혜연, 2004, 재인용).

공감의 정서적 요소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공감에 의한 정서 반응을 의미한다. 공감의 정서반응에는 정서의 공유(Lipps, 1926), 정서적 공명(Barrett-Lennard, 1981), 정서적 감염(sullivan, 1953), 공감적 관심(Davis, 1983), 공감적 고통(Hoffman, 1982), 동정(Eisenberg & Miller, 1987)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 정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공감에 의해 관찰자와 대상이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다. 정서의 공유, 정서적 공명은 이렇게 대상과 관찰자가 동일한 감정을 경험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된다(오정아, 2005). 공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Lipps(1926)은 공감의 최종 결과로 공유된 느낌'이라고 보았다. 공감하는 사람은 느낌의 수납자로 파악하고 공감 대상에서 공감하는 사람에게로 정서적 메시지가 전달된 결과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박성희(2009)은 정서적 공명이란 한 사람의 감정이 다른 사람 속에도 똑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공감과정에서 상호감정이 일치한 경우 정서적 공명의 개념으로 표현된다고 정의하였다.

둘째,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다. Davis(1980)의 지적 동정, 공감적 관심, Hoffman(1982)의 공감적 고통 등이 여기에 속한다.

Batson, Fultz와 Schoenrode(1987)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한 결과로서 경험된 타자 지향적인 배려, 자비, 상냥함의 느낌이라고 하였고, Barnett(1982)은 다른 사람의 정서와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치되는 정서의 대리적 경험이라고 하였으며, Eisenberg와 Miller(1987)는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나 조건의 이해로부터 촉발된 그와 부합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박성희, 2004, 재인용). 신경일(1994)은 공감적 관심이란 어떤 특정 경험을 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온정, 연민, 관심의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이라고 하였고, 박성희(2009)은 어떤 특정 경험을 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온정, 연민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성된 공

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뜻한다.

Hoffman(1982)은 그의 공감 발달 이론을 전개하면서 무의식적, 자발적인 정서 반응으로서 공감을 역할수용, 관점수용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성숙한 공감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즉 보다 어릴 때에는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관찰하게 되면 그와 동일한 감정인 '공감적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 공감적 고통이 역할수용 능력이 발달됨에 따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동정적 고통'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신경일, 1994, 재인용).

이와 같이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에는 대상과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반응이 있고(정서적 공명, 정서적 공유, 정서적 감염),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동정이나 관심, 연민의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 반응(지적 동정, 공감적 관심, 동정적 고통)이 있다.

공감의 표현적 요소란 내적으로 이루어진 공감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 즉 내적으로 관점수용과 정서적 공명, 공감적 관심이 일어났을 때 외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신경일, 1994). 박혜원(2002)는 공감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지각 세계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의 내부에 흐르는 의미를 느끼는 것으로 인지, 정서, 의사소통 등의 요소가 결합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고 그 정서를 대리 경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의사소통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에 정의에 의사소통 요소를 포함시킨 학자는 Rogers(1957)다. 그는 상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일치성 또는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수용,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적 이해'에는 전달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다. Rogers(1957)의 전통을 이어 받은 학자들은 공감적 이해를 나타내는 언어적인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고, 공감적 표현을 보다 정교화 하고 구체화 하는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Carkhuff와 Truax(1965)는 상담자의 지각된 공감이 청감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공감을 '현재의 느낌에 대해 민감하고, 이렇게 느낀 바를 청담자의 현재 느낌에 조율한 언어로 전달하는 언어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강은주, 2005, 재인용). 이러한 공감의 표현적 요소는 내적으로 이루어진 공감이 외적으로 표현되는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공감적 언어 표현이나 이기적 동기 또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 조력행동으로 나타

난다(김진아, 2009).

Batson, Fultz & Schoenrade(1987)에 의하면 공감에 의한 조력행동은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이기적 동기에 의한 조력행동과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이타적 동기의 조력행동으로 구분된다. 공감에 의한 대리적 정서 경험에는 관찰 받고 있는 타인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공감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와 그 타인에 대한 온정이나 관심 같은 부드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기적 동기에 의한 조력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감은 내적 과정을 거쳐 이기적 동기나 이타적 동기에 의해서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력행동을 나타내게 되며,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볼 때 공감에 의한 조력행동이란 공감적 언어 표현이다(오정아, 2005, 재인용).

이상에서 보듯이 공감은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표현적 요소로 구성이 된다.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과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볼 수 있는 관점수용을 의미하며, 정서적 요소는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에 대한 정서 반응으로서 정서적 공명, 공감적 관심이 포함된다. 표현적 요소는 내적으로 관점수용과 정서적 공명, 공감적 관심 등이 일어났을 때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전달되면서 이타적 동기에 의한 공감적 언어의 표현방식과 조력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고, 느낌, 의도 등을 바르게 지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점수용과 상대방의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공명, 타인에 대한 온정,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공감적 관심을 보고자 한다.

3.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요점은 귀를 열어서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의를 집중하여 상대방의 이야기

를 잘 들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은 대화의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서로간의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 감정은 아주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강점을 이해받기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말 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귀 기울여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며 친근함을 느낀다. 결국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해준다면 서로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조신영, 2007).

청각집중력이 높은 초등학생은 또래 친구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높다. 그러므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친한 친구도 많이 생기게 된다. 즉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더 잘 지낼 수 있다(한국집중력센터, 2008). 반면에 청각집중력이 낮은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다. 왜냐하면 친구가 무슨 말을 할 때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친구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작은 소리에도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정보가 많아지게 되어 타인의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이 친구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집중해야 한다. 물론 언어 이외에 다양한 얼굴표정과 몸동작으로 표현되는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상대방의 언어의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공감적 이해를 안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각집중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장희(2004)의 연구에서는 청각 기억훈련을 통한 학습부진아의 기억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김희정(2002)은 청각적 이미지 활용을 통한 창의적 글쓰기에 연구에서 청각을 통해 음악을 듣고 글쓰기를 하면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권명옥(2002)은 청각통합훈련이 자폐성 아동의 사회성 및 인지발달 측면의 전반적인 발달 능력에 효과가 있으며, 김미숙(2008)은 이야기 듣기를 통한 의문사 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청각적 언어 이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신숙경(2001)은 선택적 질문 프로그램을 통한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적 언어 이해 능력이 향상 되었고, 질문을 하는 동안의 대상 주의집

중 시간이 길어지면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도 점차 빨라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delson(1999)의 연구에서는 청각통합훈련을 받은 집단은 청각정보처리가 월등히 향상되었는데, 이는 집중력의 개선과 관련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Monville 과 Nelson(1994)는 청각통합훈련 이후의 변화에 대한 부모관점을 조사하여 150명의 부모들 중 42명의 부모들 응답자 중 85%는 집중력이 개선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청각통합훈련이 집중력 개선에 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권명옥, 2002, 재인용).

Stephen Covey(1932)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상대방의 대화 속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은 후에 이야기 한다면 상대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주의 깊게 듣게 되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공감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핵심적인 통로이다.

공감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로는,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강석순(2004)의 연구에서 공감은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동기를 강화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오정아(2005)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김진아(2008)은 독서요법을 활용한 공감훈련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증진되어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 한정운(2009)은 사랑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긍정적 사고가 증진되어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최경순(2006)은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소미(2007)의 연구에서는 게임중심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증진되어 공감능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관한 상관연구를 살펴보면, 신정희(2003)는 초등학교 아동의 듣기 과정을 통해 주의를 집중하여 경청태도를 습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 심형택(1989)은 적극적으로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활동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수용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진은주(1999)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듣기는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 이라고 하였다.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판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이입의 차원에서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감적 듣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벽을 허물고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임규홍(1998)은 듣기활동이 인간이 경험하는 의사소통 가운데 가장 일찍 경험하며 많은 시간에 걸쳐 경험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듣기를 통해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고 전제하면서 듣기 교육의 방안으로 청각정보에 관련된 듣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은경(2008)은 듣기가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적인 성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정리해 줌으로써 상대가 사고를 정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들어주기가 상담의 한 방법이 된다는 점은 듣기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정선(2009)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말하기와 더불어 의사소통을 이루는 기본적인 중요한 축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어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 비추어 보아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청각집중력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능력이 신장되어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집중 할 수 있는 청

각집중력 높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감능력의 향상 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

4.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의 구성

사전용어에 의하면 SMART는 매사에 좋은 머리로 일을 척척 잘 진행시키는 것을 말하고, 지금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던 정도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지능화 된 또는 지능형(intelligent)이라는 용어와 같은 개념으로 영리하고 똑똑함을 뜻한다.

창의적이고 똑똑한 초등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각 자극을 통한 집중력 훈련은 매우 유용하다. 이는 초등학생의 인지적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며 어떠한 정보가 뇌로 가기 위해서는 귀로 듣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청각 자극을 통한 집중력 향상은 창의력과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인 초등학생의 인지발달과 학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 영상교육의 발달로 듣기를 통해 정보를 수용하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어 감으로써 청각훈련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각훈련은 듣기 점검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말소리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고, 말소리의 변별, 말소리의 확인, 말소리의 이해 순서로 듣기훈련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말소리의 억양과 리듬, 강약과 같은 정보들을 지각하는 훈련도 포함된다. 청각훈련의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기억력과 집중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장희, 2004; 김희정, 2002), 학습부진 아동 및 청각 장애 아동과 같은 특수아동에게도 청각적 언어 이해 능력의 효과가 있음을(김미숙, 2008)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한국집중력센터, 2008)은 다양한 청각자극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접하면서 청각정보처리능력과 소리간의 변별 능력을 높이며 특정 소리에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청각집중력 훈련을 통해 청각집중력이 향상된 초등학생의 경우 중요한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잘 구분할 수 있고 사소한 소리에 쉽게 주의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청각 정보를 받아 들일 수 있다.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총 16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생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매차기 공통 진행사항으로는 5단계 생각법 배우기,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 집중송 부르기, 활동 마지막에 실시하는 나의 집중력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 평가 시간이 있다.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은 문제이해, 계획수립, 중간점검, 사후평가, 자기강화의 5단계 생각법에 따라 진행된다. 초등학생에게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며, 신중하게 과제를 풀어 답을 찾아내도록 훈련한다. 초등학생은 프로그램 회기동안 규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거나 조절한다. 훈련 결과 초등학생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경험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학습활동에 대한 시각도 점차 발전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5단계 생각법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키워나가며 점검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산만함을 조절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 매 단계마다 자신과 대화하는 내면화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청각 자극을 통해 집중력을 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특정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청각집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5단계 생각법



1. 무엇을 해야 하지?
2. 어떤 방법으로 할까?
3. 계획대로 하고 있나?
4. 어떻게 했지?
5.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5. 괜찮아, 다음번엔 더 노력하자

집 중 송



가만가만 무얼 해야 하나요?
차분차분 생각부터 해야지!
계획부터 하나하나 세워,
중간중간 점검하며 해야지,

다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실수한 게 없는지를 살펴봐
집중해서 잘했으면 칭찬
못했으면 다음 번에 더 잘해

▶ 1단계: 문제정의: 무엇을 해야 하지?

5단계 생각법의 시작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동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해야 하는게 뭐지?’ 라고 질문을 하면 아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종류와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생각을 시작한다.

▶ 2단계: 계획수립: 어떤 방법으로 할까?

5단계 생각법의 두 번째 단계는 해야 할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무작정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대답을 독려하고, 아동 나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 3단계: 계획대로 하고 있나?

활동을 수행하는 중간에 계획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질문이다. 중간점검 단계는 계획적용 뿐만 아니라 자세와 책상 위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 4단계: 어떻게 했지?

활동을 마친후에는 실수로 빠뜨리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지? ”실수하거나 빠뜨린 것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자” 하며 4단계

생각법을 적용한다.

▶ 5단계: 칭찬 또는 격려

5단계 생각법의 마지막은 칭찬과 격려이다. 활동을 마친 후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한다. 칭찬과 격려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다독거리는 행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활동을 마친후에 적극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 주면 아동은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의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되고 있고, 특별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1회기씩 실시하였으며, 시간은 60분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내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규칙과 집단 구성원간의 소개를 통해 참여 동기부여와 집단구성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뢰감을 쌓는 단계이다.

본격적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의 진행은 2회기부터 시작되었다.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 맞추는 활동,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 들려주는 날씨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기온을 적거나 설명과 다른 날씨는 찾는 활동, 불러주는 것을 잘 듣고 외워서 그림을 그리는 활동 등의 다양한 내용들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특정한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있는 변별능력을 높이고, 청각부분에서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종결은 10회기에 포함되며 지금까지의 나의 집중력 정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소감문을 통해 기록하고 발표하며 사후검사를 실시한다.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방법 즉, 연구대상, 실험설계, 연구절차, 측정도구,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선택하여 실험집단 35명, 비교집단 35명을 무선 표집하였다.

2. 실험설계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실험 · 비교집단 설계를 채택했으며 그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	O ₁	X	O ₃
비교집단	O ₂		O ₄

O₁, O₃ : 사전검사 (청각집중력 검사, 공감능력 검사)

O₂, O₄ : 사후검사 (청각집중력 검사, 공감능력 검사)

X :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

[그림 Ⅲ-1] 실험설계

3. 연구절차

1) 연구의 진행절차

본 연구의 진행은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실험·비교집단의 구성,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주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 70명을 청각집중력 검사와 공감능력 검사를 통해 동질 집단을 검증한 후 실험집단 35명과 비교집단 35명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적용·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게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2009년 10월 9일~12월 18일까지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주1회(금요일) 60분씩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회기 소감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 진행절차는 <표Ⅲ-1>과 같다.

<표Ⅲ- 1> 연구의 진행절차

실험단계	내 용	대상집단	일 정
사전검사 및 집단구성	청각집중력 검사, 공감능력 검사 실험집단 35명, 비교집단 35명	실험집단	2009년 10월 9일
		비교집단	2009년 10월 16일
실험처치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 실시	실험집단	2009년 10월 16일 2009년 12월 18일
사후검사	청각집중력 검사, 공감능력검사	실험집단 비교집단	2009년 12월 18일

2)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

한국집중력센터(2008)에 의해 개발된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활동내용은 <표Ⅲ-2>과 같다.

<표Ⅲ-2>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

회기	활동명	목적	내용
1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및 동기부여	♦ 소개하기, 나의 약속 ♦ 지금 나의 집중력 정도는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 ♦ 5단계 생각법, 집중송 배우기
	♦ 무슨 소리일까요	청각주의력	♦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 맞추는 활동
2	♦ 머릿속으로 그림그리기 I,II	청각기억력 심상 훈련	♦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
3	♦ 일기예보	청각주의력	♦ 들려주는 날씨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기온을 적는다.
	♦ 몸짓가라사대		♦ '가라사대' 라고 하면 지시에 따른다
4	♦ 이야기 수수께끼	청각집중력	♦ 들려주는 말속에 답이 있는 수수께끼 활동
	♦ 특정단어소리 박수치기 I,II		♦ 토끼라는 말이 나오면 손뼉을 치고 거북이라는 단어에는 손을 흔든다.
5	♦ 지시듣고 그림 그리기	청각주의력	♦ 불러주는 것을 잘 듣고 외워서 그림을 그리는 활동
	♦ 청기, 백기를 올려라		♦ 구호자의 소리를 잘 듣고 왼손(청기)과 오른손(백기)를 올린다.
6	♦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청각집중력	♦ 문제를 잘 듣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여 답을 적는 활동
7	♦ 물건 기억하기	단기기억력	♦ 어떤 장소에 있는 물건들을 이야기하면 기억하여 답을 적는 활동
8	♦ 설명과 다른 단어찾기	지속적 주의집중력	♦ 들려주는 말을 잘 듣고 설명과 다른 글자를 찾는 활동
	♦ 색칠하기		♦ 불러주는 말을 잘 듣고 활동지에 색칠하는 활동
9	♦ 열고개 넘기	청각기억력	♦ 10가지 힌트를 듣고 무엇인지 맞추는 활동
10	♦ 이야기 듣고 듣고 답하기	청각기억력	♦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그 이야기의 질문에 답을 적는 활동
	♦ 마무리		♦ 소감나누기

4. 측정도구

1) 청각집중력 검사

한국집중력센터(2008)에서 개발된 주의집중 능력검사(Concentration Ability Test)의 6단계 중 청각부분에서의 주의집중력을 측정하는 청각집중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청각집중력은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숫자 정보를 기억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청각집중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각집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청각집중력은 들려주는 문제를 잘 듣고 답을 적는 것으로 정답을 맞혔을 경우 각 1점씩 측정하여 총점을 계산하였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이 검사도구를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전과 실시 후의 사전 사후 검사로 사용 되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 이다.

2) 공감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송호연(1999)이 아동에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공감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신경일(1994)이 Davis의 검사를 상담자의 공감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재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송호연의 측정도구는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긍정 질문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씩 계산하였다. 부정 질문 문항(2, 9, 15, 16, 17, 18, 20, 21, 24, 27, 28, 31, 34)은 역산하며 점수의 범위는 39점~195점의 범위를 갖는다. 신뢰도는 송호연(1999)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0$ 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5$ 로 나타났다.

<표Ⅲ-3> 공감능력 척도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관점수용	10	1, 7, *9, 12, *16, *20, *27, 30, 37, 39	.781
공감적 관심	19	*2, 5, 10, 13, 14, *17, *18, *21, 22, 23, 25, 26, *28, 29, *31, 32, 33, *34, 36	.864
정서적 공명	10	3, 4, 6, 8, 11, *15, 19, *24, 35, 38	.742
계	39		.825

*는 역산 문항

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12.0으로 이루어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 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 ② 실험집단에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실험집단에 사후검사를 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 ③ 실험집단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검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1) 청각집중력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사전 청각집중력이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집단 간 청각집중력 사전검사 비교

구 분	실험집단(n=35)		비교집단(n=35)		t	p
	M	SD	M	SD		
청각집중력	6.40	2.33	6.26	2.09	.270	.788

위의 <표 IV-1>과 같이 청각집중력의 사전 동질성 검사결과 $t=.270$, $p>.05$ 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청각집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공감능력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 사전 공감능력이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IV-2>과 같다.

<표IV-2> 집단 간 공감능력 사전검사 비교

하위요인	실험집단(n=35)		비교집단(n=35)		t	p
	M	SD	M	SD		
관점수용	2.25	.55	2.26	.55	-.044	.965
공감적관심	2.66	.57	2.67	.57	-.022	.982
정서적공명	2.35	.55	2.33	.55	.086	.932
전체	2.46	.38	2.46	.39	0	1

위의 <표IV-2>과 같이 공감능력의 사전 동질성 검사결과 $t=0$, $p>.05$ 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공감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가설 검증

1) 가설 1의 차이 검증

【가설 1】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과 받지 않은 비교집단간에 청각집중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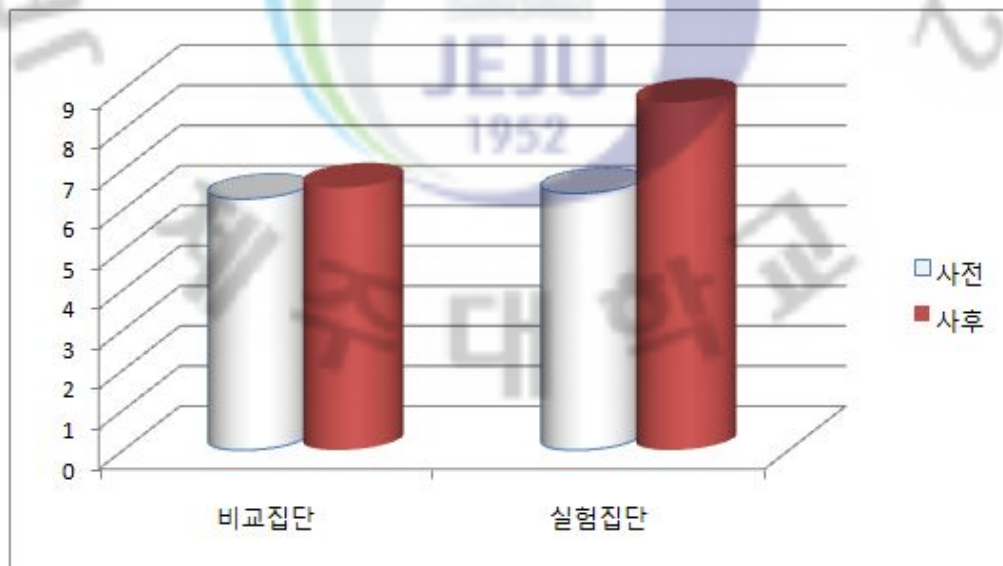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 간 청각집중력을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t-test를 실시하여 알아 본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집단 간 청각집중력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N	N	사전		사후		t
			M	SD	M	SD	
청각집중력	35	실험집단	6.40	2.33	8.66	2.84	3.608***
	35	비교집단	6.26	2.09	6.54	1.99	

***p<.001

<표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각집중력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평균 8.66, 비교집단은 평균 6.54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608$, $p<.001$). 따라서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은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청각집중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이 수용되었다. 즉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후에 실험집단의 청각집중력은 크게 높아진 것에 반하여 비교집단은 별 차이가 없어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청각집중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사전 · 사후 청각집중력 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관찰 장면에서도 나타났는데 회기가 지날수록 초등학생들은 들려주는 언어에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청각 집중력이 향상 되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가설 2의 차이 검증

【가설 2】 :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과 받지 않은 비교집단간에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 간 공감능력을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t-test를 실시하여 알아 본 결과는 <표IV-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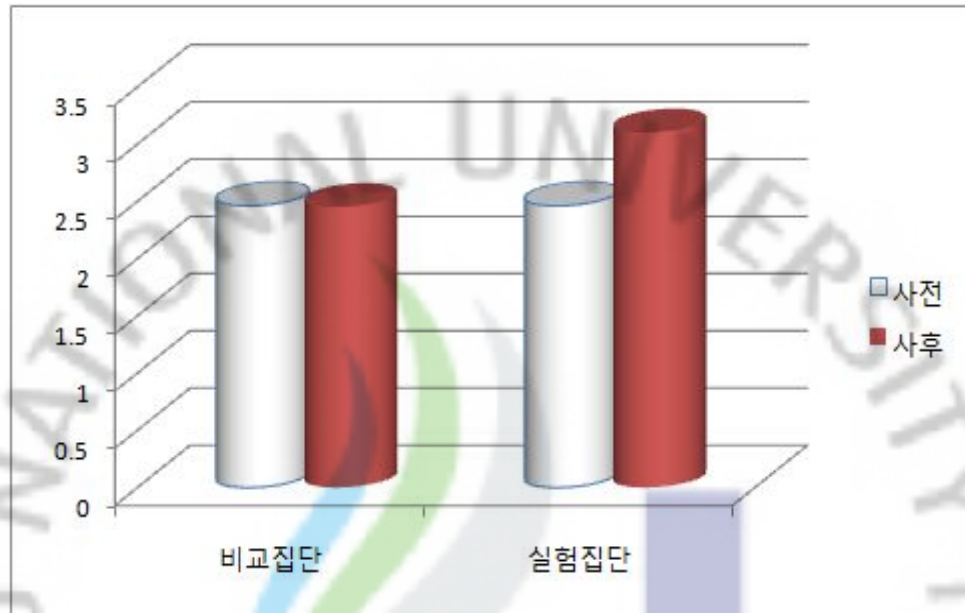
<표IV-4> 집단 간 공감능력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N	사전		사후		t	
		M	SD	M	SD		
공감능력 전체	실험집단	35	2.46	.38	3.10	.35	6.68***
	비교집단	35	2.46	.39	2.45	.46	

***p<.001

<표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감능력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에서 실험집단은 평균 3.10, 비교집단은 평균 2.45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의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6.68, p<.001). 따라서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은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가 수용되었다. 즉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이 받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공감능

력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공감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사전·사후 공감능력 변화

이러한 결과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사고가 증진되어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신정희(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실험집단이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가설 3의 차이 검증

【가설 3】 :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과 받지 않은 비교 집단간에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관점수용, 공감적관심, 정서적공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 간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을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t-test를 실시하여 알아 본 결과는 <표IV-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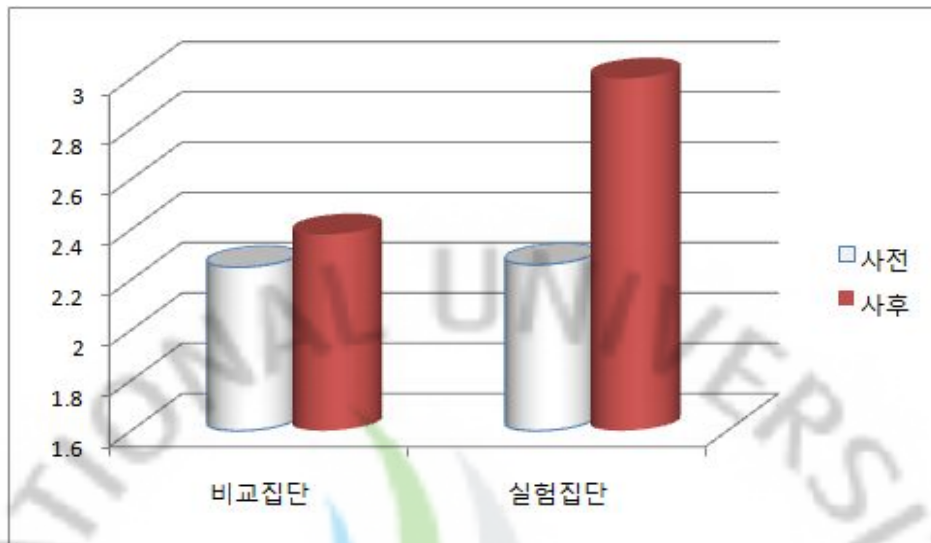
<표IV-5> 집단 간 공감능력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N	사전		사후		t
			M	SD	M	SD	
관점수용	실험집단	35	2.25	.55	3.57	.46	10.194***
	비교집단	35	2.26	.55	2.38	.51	
공감적 관심	실험집단	35	2.66	.57	3.98	.33	13.908***
	비교집단	35	2.67	.57	2.79	.38	
정서적 공명	실험집단	35	2.35	.55	3.29	.73	5.547***
	비교집단	35	2.33	.55	2.43	.5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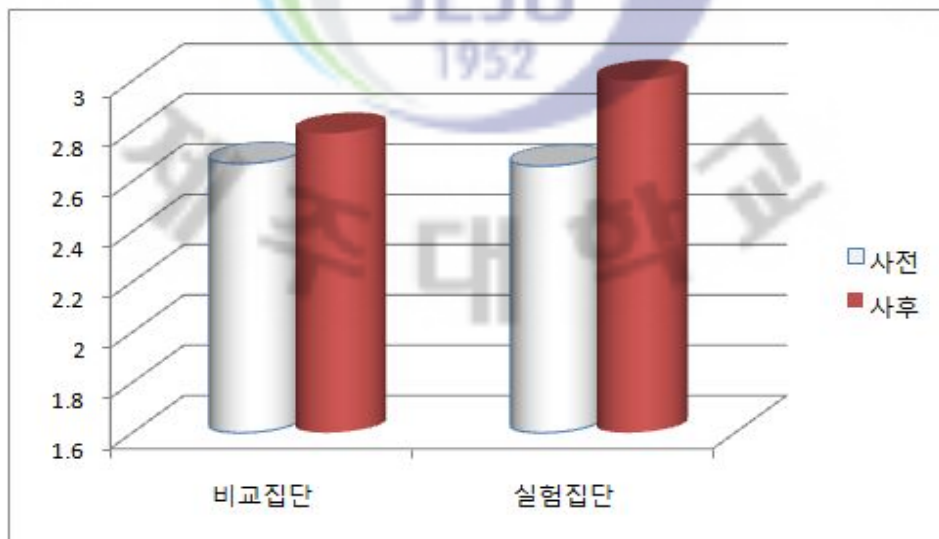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결과를 살펴보면, 관점수용의 경우 실험집단은 평균 3.57, 비교집단은 2.38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0.194, p<.001). 공감적 관심의 경우 실험집단은 평균 3.98, 비교집단은 2.79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3.908, p<.001). 정서적 공명의 경우 실험집단은 평균 3.29, 비교집단은 2.43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547, p<.001). 그러므로 [가설3]은 수용되었으며,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공감능력 하위요인인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하위요인 점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3], [그림 IV-4], [그림 IV-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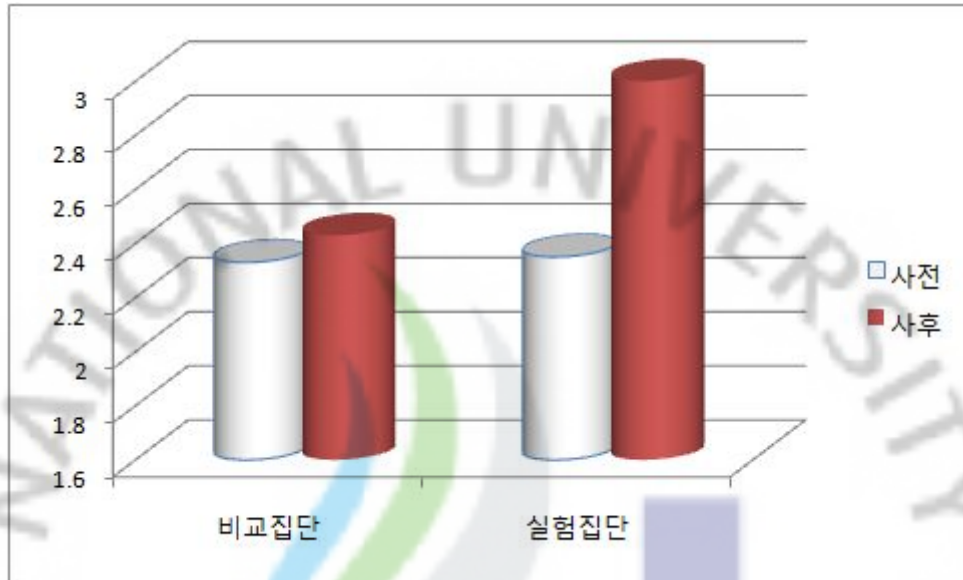
[그림 IV-3] 사전·사후 관점수용 변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은 받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관점수용의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관점수용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험집단이 청각 집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사고, 느낌, 의도 등을 바르게 지각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V-4] 사전·사후 공감적 관심 변화

[그림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은 받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공감적 관심의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각 집중력 프로그램이 공감적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5] 사전·사후 정서적 공명 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정서적 공명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오정아(2005)의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감훈련을 실시 후 정서적 공명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김진아(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은 받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정서적 공명의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정서적 공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가설 4의 상관 검증

【가설 4】 :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IV-6>과 같다.

<표IV-6> 실험집단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의 상관분석 결과

	청각집중력
관점수용	.279*
공감적관심	.294*
정서적공명	.213
공감능력 전체	.154

*p<.05

<표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전체 점수간의 상관은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하위 요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청각집중력과 관점수용 간의 상관($r=.279$, $P<.05$)를 보이고 있고, 청각집중력과 공감적 관심간의 상관($r=.294$, $P<.05$)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하위요인 간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듣기 훈련을 통해 경청태도를 습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신정희(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청각집중력이 향상되어 다른 사람의 사고, 느낌, 의도 등을 바르게 지각하는 관점수용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감적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자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에게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둘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셋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에 상관이 있는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70명으로 실험집단 35명과 비교집단 35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 실험집단에 대한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2009년 10월 9일~12월 18일까지 주 1회(금요일) 60분씩 총 10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전검사에 실시했던 동일한 검사 도구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호연(1999)이 아동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공감능력 검사를 사용하였고, 청각집중력은 한국집중력센터(2008)에서 개발된 주의집중 능력검사(Concentration Ability Test)의 6단계 중 청각부분에서의 주의집중력을 측정하는 청각집중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SPSS WIN 12.0을 활용하여 실험집단에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t-검증을 하였으며, 실험집단의 청각주의집중력과 공감능력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청각집중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608, p<.001$). 따라서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68, p<.001$). 따라서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공감능력 하위요인 관점수용($t=10.194, p<.001$), 공감적 관심($t=13.908, p<.001$), 정서적 공명($t=5.547, p<.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하위요인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받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전체 점수간의 상관은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하위요인 간에 청각집중력 점수와 관점수용간의 상관($r=.279, p<.05$), 청각집중력과 공감적 관심간의 상관($r=.294, p<.05$)이 있다. 이는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하위요인 간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매회기 마다 청각 자극을 통해 집중력을 훈련하여 특정 소리에 주의를 집중하고 올바른 학습 태도가 형성되어 청각집중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깊게 듣는 태도가 향상되어 친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훈련하고 있는 5단계 생각법을 통해 아동 스스로 집중력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성공적인 과제수행과 바람직한 학습 습관을 키워줌으로써 청각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학교 및 다양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그 하위영역인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고, 느낌, 의도 등을 바르게 지각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점수용에 효과가 있었으며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고 따뜻한 배려를 느끼는 공감적 관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서적 공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받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은 향상되며 공감능력도 향상된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듣는 청각집중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헤아

릴 수 있는 공감능력이 향상되어 학교에서의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청각집중력 훈련을 실시한다면 요즘 학교 사회에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의 주의 깊게 듣는 청각집중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감능력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이 10주간 진행되는 동안 초등학생의 청각집중력과 공감능력의 단기적 변화뿐만 아니라 추후 검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효과 검증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실험대상이 5학년 한 학급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학생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표집의 다양화와 학년 차이에 따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 아동들의 개인별 특성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점과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을 검사지를 이용한 질문지법에 의존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동들의 개인적 특성을 관찰할 수 있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면접법이나 관찰법, 사례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석순(2004). 공감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은주(2005). 공감훈련이 사무직 근로자의 공감능력과 갈등해소 양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경련(2001). 사회적 기술향상 집단상담이 아동의 공감능력, 자기노출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명옥(2002). 청각통합훈련이 자폐성 아동의 언어와 사회성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정안(200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소미(2007). 게임중심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교우관계 및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근중(2006). 사고한 습관이 나를 바꾼다. 중앙경제평론사.
- 김기순(1996).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공감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도움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일(2007). 아동발달과 학습. 교육출판사.
- 김미숙(2009). 이야기 듣기를 통한 의문사 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아동의 청각적 언어이해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상인(2009). 경청과 공감 그리고 진단. 한국전인교육개발원.
- 김영채(2004). 명상지도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주의집중 및 자아 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장희(2004). 청각기억훈련을 통한 학습부진아의 단기 기억력 향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2007). 명상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안정과 주의집중력에 미치

- 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08). 아동의 주의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비주얼 테라피 연구. 국민대학교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아(2009). 독서요법을 통한 공감훈련이 초등학생의 또래 간 공감능력과 갈등 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진(2001). 주의집중 향상 훈련이 첨가된 자기조절 학습훈련 프로그램이 초등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효실(2008). REBT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2002). 청각적 이미지 활용을 통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봉식(2001). 주의집중훈련이 발달 장애아의 도형 채색 과제 해결 기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선모(2007). 학습이론. 양서원.
- 문장원(2008). 문제행동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목상담연구. 수원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기영(1998). 선택적 주의집중 모델을 이용한 고립 단어 음성 인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희(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 원미사
- _____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 _____ (2009). 공감. 이너북스.
- 박혜원(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성미(2009). 로즈마리 아로마 오일이 초등학생들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학지사.
- 송호연(1999).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감과 도움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경일(1994).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민섭(2009). 스피치 공부잘하는 법. 주니어 김영사.
- 신숙경(2001). 선택형 질문 훈련프로그램이 청각장애아동의 청각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정희(2003). 활동중심의 경청기술훈련이 초등학생 아동의 경청 및 공감능력의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영택(1989).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은경(2008). 중학생의 공감적 듣기 실태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정선(2009). 공감적 듣기 중심의 대화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정아(2005).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규미(2009). 고등학생의 주의 집중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경(2008). 공부 집중력을 잡아라. 시공사.
- _____(2008). 집중력이 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랜덤하우스.
- _____(2008). 10살 전 아이에게 꼭 심어줘야 할 5가지 품성. 살림출판사.
- 이성록(2007). 사회적 인간의 본성. 다빈치하우스.
- 이성진(2005). 학령기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또래수용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세원(1998).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2007). 방과후 학교 음악활동을 통한 학습부진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과제 수행력 향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현(2003). 집단상담에서 타인조망수용 훈련을 통한 자기의식, 타인관점수용 대인관계 변화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혜(2005). 다중지능과 공감능력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염정순(2010). 스마트 주의집중훈련 프로그램이 ADHD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규홍(1998). 어떻게 말하고 들을 것인가. 박이정.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학지사.
- 정혜연(2004).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휘숙(2001). 아동발달. 학지사.
- 조신영(2007). 경청. 위즈덤 하우스.
- 조윤희(2009). 고등학생의 주의 집중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희숙 외 공저(1994). 아동발달심리. 학지사.
- 주말선(2007). Ram, Hari 만트라가 바타체질 초등학생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은주(1999). 말하기 · 듣기 교육론. 박이정.
- 최경순(2006).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표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 영(1997).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하나의학사.
- 최정금(2008). 집중력을 높이는 유아놀이. 경향미디어.
- 한경애(2002). 과정중심 듣기 지도전략의 적용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집중력센터(2008). 집중력 이론과 실제. 집중력 교육개발팀.
- 한명수(2000).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정윤(2009). 사랑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중순(2005).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rrett-Lennard. G. F (1981). The empathy Scale : Refinement of a nuclear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Batson, C. D. Fultz, J. & Schoenrode, P. A.(1987). Distress and empathy ; Two qualitatively distinct vicarious emotions with different motivational consequence, *Journal of Personality*, 19-40.
- Bryant, B, K(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ment*, 53, 413-425.
- Borke. A.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2-269.
- Chapman, M. (1987). Empathy and responsibility in the motivation of children's helping, *Development pshychology*, 23, 1, 140-145.
-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o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eutsch, F. e Madle, R. A. (1975). Empathy : Historic and current conceptualizations, measurement, and a cognitive theoretical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18, 267-287.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hathy and its development*, N, Y : Cambrige University Press.
- Feshbach, N. D(1975). Empathy in children :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 Hoffman, M. L(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 Lara Honos Webb. (2008). *The Gift of ADHD*. Schisma Press.
- Monville, D. S. & Nelson. N. W. (1994). Parental Perceptions of change Following auditory integration training for auditory integration training for autism.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3(2). 41-53.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therapy*. chicago : Aldine.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Kagan Paul : Trench, Trubner.

Rogers, C. R. (1975). Empathy :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Conseilng Psychology*, 5, 2-10.

Wyschogrod, E, (1981). Empsthy and sympathy as Tactile Encounter, J. *Medicine and Philosophy*, pp. 157-172.



< Abstract >

The Effect of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on the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Kim, Hyun Jung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ark, Tae Soo

The purpose of this study¹⁾ is to clarify what effects the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has in improving the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the following study questions have been set up to make this possible.

1. What effects does the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have in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2. What effects does the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have in empathy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3. In there correlation between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ve received the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To solve the study questions above,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in the order of selecting the study target, preliminary test, organization of experiment group and comparison group, application of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ex post facto test and data analysis.

1) This thesis is a master's thesis in educ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mmitte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August, 2010.

For the study target, 35 people for the experiment group and 35 people for the comparison group was organized by random sampling of 70 students in 5th grade of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at the city of Jeju .to perform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on the experiment group and no steps were taken on the comparison group, The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was performed directly by the researcher and performed once a week 60 minutes at a time over a total of 10 times only on the experiment group utilizing the special activity hours.

For the measuring tool used in this study, a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test measuring the concentration ability in the hearing aspect among the 6 stages of Concentration Ability Test developed by Korea Concentration Ability Center (2008) and an empathy ability test sheet revised by Song, Ho Yeon (1999) to be appropriate for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factors of empathy ability test are consisted of a total of 39 questions with acceptance of viewpoint, empathic interest and emotional sympathy.

For the data analysis in this study, the SPSS 12.0 was used while the preliminary and ex post facto t-test was performed.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on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of the experiment group was used.

The study results gained through the processes above are as follows.

First, the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improves the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cond, the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improves the empathy ability and its subcategor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 there is qualit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and some sub-factors in case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ve received the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If the conclusions above are summarized, the SMART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uggests that they are able to maintain a satisfactory relationship with their classmates in school as the empathy ability to pay attention to what other people are saying and figure out the thoughts or feelings inside those words as the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to listen to what other people are saying carefully gets higher. Therefore,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program is helpful for improving the hearing concentr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부 록

1. 청각집중력검사	52
2. 공감능력검사	53
3.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	57
4. 활동자료	67
5. 소감문	72

부록 1

청각집중력 검사

문제를 잘 듣고 답을 쓰세요. 문제는 한번만 들려줍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종이에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다 들은 후에는 종이에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다 들은 후에 답을 쓰세요.

예 시	3자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부록 2

공감능력 검사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질문지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느낌과 생각으로 친구를 사귀는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지는 오로지 연구에 의해서만 사용이 될 것이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절대 사용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각 문항을 읽고서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1개를 골라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특별히 더 낫다거나 좋은 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현정 드림

< 보 기 >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 다 (2)	다소 그렇 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 다 (5)
1	나는 가끔 유행가를 듣고 깊이 감동 한다.			✓		

()학년 ()반 이름 () 성 별 (남, 여)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 다 (2)	다소 그렇 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 다 (5)
1	나는 학급에서 놀 친구가 없거나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를 보면 슬퍼진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 다 (2)	다소 그렇 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 다 (5)
2	개와 고양이를 사람인 것처럼 관심과 애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대해 주는 것은 어리석다.					
3	나는 불쌍하게 보이는 불행한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					
4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불안하게 보이면 나도 불안해 진다.					
5	나는 친구의 문제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경향이 있다.					
6	가끔 유행가 가사가 나를 깊이 감동시킨다.					
7	나는 친구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 지 모르겠다.					
8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의 기분에 의해 많이 좌우 된다.					
9	어떤 친구가 불행하다고 해서 나까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다.					
10	나는 선물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다.					
11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괴롭고 울고 싶다.					
12	어떤 노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13	나의 이야기나 동화를 읽을 때 이야기 속의 인물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4	나는 어떤 친구가 부당하게 대우 받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난다.					
15	나는 나의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 격정하고 있을 때라도 차분하게 있을 수 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 다 (2)	다소 그렇 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 다 (5)
16	나는 친구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 후라도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물고 갈 수 있다.					
17	나는 다른 사람의 웃음을 따라 웃는 일이 적다.					
18	가끔씩 나는 영화를 보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며 놀란다.					
19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우울해 하고 있으면 나는 내 일이 계속 잘 되어 간다고 느낄 수가 없다.					
20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21	나는 상처받은 동물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22	힘없는 노인들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23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 나는 동정심보다 화가 나서 참기 어렵다.					
24	나는 내 주위의 친구들이 모두 흥분해도 가끔씩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					
25	나는 내게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해 자주 상상을 한다.					
26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27	나는 가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28	나는 문제를 가진 다른 친구들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 다 (2)	다소 그렇 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 다 (5)
29	나는 어떤 친구가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30	나는 나의 친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곤 한다.					
31	다친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32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는다.					
33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마치 그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 진다					
34	어떤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35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우는 때가 있다.					
36	나는 나 자신의 마음씨가 꽤 부드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다.					
37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화가 났을 때 나는 잠시 동안이라도 그의 입장에서 서보려고 노력 한다.					
38	나는 아주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허둥대곤 한다.					
39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 수고하셨습니다 >

부록 3

SMART 청각집중력 프로그램

1회기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구성원들에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동기를 강화시킨다. ◆ 청각주의력을 향상시킨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다. ◆ 다같이 집중송을 부른다. ◆ 5단계 생각법을 배운다. ◆ 무슨 소리일까요? ① 무엇을 해야 하지? 10가지의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무슨 소리인지를 맞춘다. ②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 소리를 어디서 들어봤는지 잘 생각하면서 소리에 집중한다. 그리고 떠오르는 소리를 활동지에 적는다. ③ 계획대로 하고 있나? 계획한 대로 어디에서 들었던 소리인지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획대로 집중해서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④ 어떻게 했지? 10가지의 소리를 다시 들려준다. 실수를 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한다. ⑤ 칭찬 또는 격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서 칭찬 또는 격려를 하도록 한다.
정 리	<p>나의 집중력 점수를 적는다.</p> <p>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p> <p>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p>

2회기	
목 표	청각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이번 회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다. ◆ 다같이 집중송을 부른다. ◆ 5단계 생각법을 적용한다. ◆ 복식호흡을 통해 신체를 이완시킨다. ◆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림을 그린다. ② 어떤 방법으로 할까? 복식호흡 2회 반복 후 눈을 감고 지시에 따라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기를 한다. 색깔이나 모양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가능한 실제와 똑같이 그리도록 한다. ③ 계획대로 하고 있나? 집중해서 머릿속으로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④ 어떻게 했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린 것인지 생각해 본다. ⑤ 칭찬 또는 격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서 칭찬 또는 격려를 한다. 칭찬: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격려: 괜찮아, 다음번엔 더 노력하자!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집중력 점수를 적는다. ◆ 이번 시간을 통한 소감문을 작성한다. ◆ 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

3회기	
목 표	청각주의력을 향상시킨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이번 회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다. ◆ 다같이 집중송을 부른다. ◆ 5단계 생각법을 적용한다. ◆ 일기예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엇을 해야 하지? 들려주는 기온과 날씨에 대한 것을 잘 듣고 기온을 적거나 설명과 다른 날씨를 찾는다. ② 어떤 방법으로 할까? 최고 기온을 적으라고 했는지, 최저 기온을 적으라고 했는지 혹은 내일의 기온을 적으라고 했는지 내일의 기온을 적으라고 했는지를 잘 들어야 한다. 또 도시이름과 기온이 나올때는 특히 더 집중한다. ③ 계획대로 하고 있나? 일기예보를 집중해서 들으며 도시의 기온을 잘 적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④ 어떻게 했지?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일기예보를 들려준다. 다시 들려줄때 내가 쓴 답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놓친 부분을 보충한다. ⑤ 칭찬 또는 격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서 칭찬 또는 격려를 한다. 칭찬: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격려: 괜찮아, 다음번엔 더 노력하자!
정 리	<p>나의 집중력 점수를 적는다.</p> <p>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p> <p>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p>

4회기	
목 표	청각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이번 회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다. ◆ 다같이 집중송을 부른다. ◆ 5단계 생각법을 적용한다. ◆ 이야기 수수께끼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엇을 해야 하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수수께끼를 푸는 활동이다. ②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야기 수수께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이야기 수수께끼의 정답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짐작해서 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문제 안에 답을 찾는다. ③ 계획대로 하고 있나? 집중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지 살펴본다. ④ 어떻게 했지?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자신이 답을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점검을 한다. ⑤ 칭찬 또는 격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서 칭찬 또는 격려를 한다. 칭찬: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격려: 괜찮아, 다음번엔 더 노력하자!
정 리	<p>나의 집중력 점수를 적는다.</p> <p>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p> <p>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p>

5회기	
목 표	청각주의력을 향상시킨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이번 회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다. ◆ 다같이 집중송을 부른다. ◆ 5단계 생각법을 적용한다. ◆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사전에 확인을 한 후에 활동에 들어간다. ◆ 지시듣고 그림그리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엇을 해야 하지? '동그라미 옆에 세모를 그리세요' 와 같은 지시를 들려주면 그대로 활동지에 그림을 그린다. ② 어떤 방법으로 할까? 지시듣고 그림그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모, 동그라미, 네모와 같은 모양과 위, 아래, 안, 오른쪽 옆, 왼쪽 옆과 같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③ 계획대로 하고 있나? 지시를 잘 듣고 잘 그리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④ 어떻게 했지?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들려준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거나 잘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집중해서 다시 들어보고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다. ⑤ 칭찬 또는 격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서 칭찬 또는 격려를 한다. 칭찬: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격려: 괜찮아, 다음번엔 더 노력하자!
정 리	<p>나의 집중력 점수를 적는다.</p> <p>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p> <p>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p>

6회기	
목 표	청각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이번 회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다. ◆ 다같이 집중송을 부른다. ◆ 5단계 생각법을 적용한다. ◆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엇을 해야 하지? 문제를 잘 듣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여 활동지에 답을 적는다. ② 어떤 방법으로 할까? 잘 듣고 계산하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문제 속의 숫자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덧셈을 해야 하는지 곱셈을 해야 하는지 등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한 후에는 머릿속으로 차분히 문제를 풀고 소리 내어 말하지 않고 활동지에 적는다. ③ 계획대로 하고 있나? 계획대로 문제를 잘 듣고 머릿속으로 풀고 있는지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세를 점검한다. ④ 어떻게 했지? 정답은 10개의 문제를 모두 풀 후 마지막에 확인하고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본다. ⑤ 칭찬 또는 격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서 칭찬 또는 격려를 한다. 칭찬: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격려: 괜찮아, 다음번엔 더 노력하자!
정 리	<p>나의 집중력 점수를 적는다.</p> <p>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p> <p>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p>

7회기	
목 표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이번 회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다. ◆ 다같이 집중송을 부른다. ◆ 5단계 생각법을 적용한다. <p>◆ 물건 기억하기</p> <p>①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장소에 있는 물건들을 이야기 한다. 처음에는 세 개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개수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다섯 개까지 늘어난다. 물건들을 잘 기억해서 불러준 순서대로 활동지에 적는다.</p> <p>② 어떤 방법으로 할까? 물건 기억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불러 주는 동안 작은 소리로 물건을 따라 중얼거리는 것이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물건을 떠올리면서 그림으로 그릴 경우 기억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p> <p>③ 계획대로 하고 있나? 계획대로 입으로 중얼거리며 물건을 외우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p> <p>④ 어떻게 했지? 정답을 하기 전에 조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물건을 읽어준다. 물건의 목록 뿐 아니라 순서도 확인한다.</p> <p>⑤ 칭찬 또는 격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서 칭찬 또는 격려를 한다. 칭찬: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격려: 괜찮아, 다음번엔 더 노력하자!</p>
정 리	<p>나의 집중력 점수를 적는다.</p> <p>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p> <p>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p>

8회기	
목 표	지속적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이번 회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다. ◆ 다같이 집중송을 부른다. ◆ 5단계 생각법을 적용한다. ◆ 설명과 다른 단어 찾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엇을 해야 하지? 들려 주는 글과 활동지에 있는 다른 글자들이 있다. 들려주는 글과 다른 글자를 찾아 밑줄을 긋고 다른 글자의 개수를 세어 활동지에 적는다. ② 어떤 방법으로 할까? 설명과 다른 단어 찾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귀로는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서 눈은 활동지에 적힌 글에 집중해야 한다. ③ 계획대로 하고 있나? 계획대로 이야기에 집중하고 눈으로는 활동지 속의 글을 읽으며 틀린 글자를 찾아 표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④ 어떻게 했지? 정답을 하기 전에 조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들려준다. ⑤ 칭찬 또는 격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서 칭찬 또는 격려를 한다. 칭찬: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격려: 괜찮아, 다음번엔 더 노력하자!
정 리	<p>나의 집중력 점수를 적는다.</p> <p>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p> <p>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p>

9회기	
목 표	청각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이번 회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다. ◆ 다같이 집중송을 부른다. ◆ 5단계 생각법을 적용한다. ◆ 열고개 넘기 <p>①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것에 대한 열가지 힌트를 주면 그 힌트를 듣고 무엇인지 맞춘다.</p> <p>②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한 고개씩 넘을 때마다 들려주는 힌트를 잘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을 가능한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난 것을 간단하게 적어 놓는다. 열고개를 모두 들은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답 란에 적으면 된다.</p> <p>③ 계획대로 하고 있나? 계획대로 힌트를 집중해서 잘 들은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답 란에 적으면 된다.</p> <p>④ 어떻게 했지? 자신이 쓴 답을 보면서 내가 몇 번째 고개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p> <p>⑤ 칭찬 또는 격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서 칭찬 또는 격려를 한다. 칭찬: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격려: 괜찮아, 다음번엔 더 노력하자!</p>
정 리	<p>나의 집중력 점수를 적는다.</p> <p>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p> <p>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p>

10회기	
목 표	청각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단 계	활 동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이번 회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다. ◆ 다같이 집중송을 부른다. ◆ 5단계 생각법을 적용한다. ◆ 이야기 듣고 답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그 이야기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의 답을 활동지에 적는다. ②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야기를 듣고 답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를 잘 생각하며 중요한 것을 적는다. ③ 계획대로 하고 있나? 설명을 잘 듣고 중요한 단서들을 잘 적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한다 ④ 어떻게 했지? 다시 한번 지시문을 읽어 준다. 질문의 답이 조금 헛갈리거나 잘 듣지 못해 다시 들려줄때 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몇 번 문제인지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해 두었다가 다시 들으면서 빠진것을 더 적어보고 답을 고친다. ⑤ 칭찬 또는 격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서 칭찬 또는 격려를 한다. 칭찬: 잘했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격려: 괜찮아, 다음번엔 더 노력하자!
정 리	<p>나의 집중력 점수를 적는다.</p> <p>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점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p> <p>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p>

활동자료

특정 단어 박수치기 I	
활동목적	청각주의력을 향상시킨다.
진행방법	<p>① 두 명의 짝을 지어서 가위 바위 보를 해 이긴 사람에게 빨간색과 노란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p> <p>② 각 단계에 따라 가위 바위 보를 강아지와 고양이, 색깔과 동물이 나올 때마다 손등을 때리는 사람을 정한다.</p> <p>③ 지도자가 읽기 자료를 읽어 주는 동안 아이들은 짝끼리 서로 한손을 잡고 한 명은 이야기 중에서 빨간색이 나올때 마다 잡고있는 상대편 손등을 때리고 다른 한명은 노란색이 나올때 마다 상대편의 손등을 때린다. 자신이 맞을 경우에 재빨리 손등으로 막아 피할 수도 있다.</p> <p>④ 지도자는 빨간 모자 강아지와 노란 모자 고양이 읽기 자료를 읽어주며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3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다.</p>
활동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1단계: 빨간 대 노란</p> <p>선생님이 하루는 퇴근을 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선생님을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 강아지는 이상하게도 <u>빨간</u> 모자를 쓰고 있더라구, '히야! 그거 참 희한한 일이니,' 생각하면서 도대체 누가 저 <u>빨간</u> 모자를 강아지한테 씌웠을까 생각했지, 바로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앞을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웬일이니. 이 고양이는 <u>빨간색</u>이 아니라 <u>노란색</u>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참 희한한 날이네.' <u>빨간</u> 모자를 쓴 강아지를 보질 않나, 거기다 <u>노란</u> 모자를 쓴 고양이를 보지 않나. <u>노란</u> 모자 고양이를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고양이 같더라구.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고양이가 쓰고 있는 <u>노란</u> 모자가 바로 선생님 아기한테 선물한 <u>노란</u> 모자와 똑같은 <u>노란</u> 모자더라구.</p>

특정 단어 박수치기 II

활동목적	청각주의력을 향상시킨다.
진행방법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잘 듣고 있다가 '토끼'라는 말이 나오면 다 같이 손뼉을 치고 '거북이'라는 단어에는 손을 흔든다.
활동자료	<p>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와 거북이는 토요일에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거북이는 김밥을 싸고 토끼는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토요일이라 차가 너무 많아서 도로가 복잡했어요. 토끼와 거북이는 차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토끼가 멀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토끼 죽네. 토끼 살려" 거북이는 토끼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었어요. 결국 토끼와 거북이는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p> <p>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토끼는 속이 너무 거북해서 결국은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등에 업고 토끼네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토끼는 거북이 등에 타고는 "아이고 토끼 죽네. 토끼 살려" 라고 끽끔 앓았어요. 거북이는 토끼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속이 거북한 토끼를 위해 거북이는 호박죽을 끓여 주기로 했어요. 죽이 다 끓자 토끼는 호박죽을 맛있게 먹었어요. 토끼는 거북이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에게 예쁜 토끼 인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꼭 끌어안고 서로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었습니다.</p>

2단계: 강아지 대 고양이

그래서 그 고양이가 혹시 우리 아기 모자를 빼앗은 것이 아닐까 하고 고양이를 쫓아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강아지가 고양이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한참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빨간 강아지가 뛰기 시작하는 거야. 옆에 있던 노란 모자 강아지도, 아니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도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덩달아 노란 모자를 잡으려고 뛰었지. 그런데 그만 강아지가 쓰고 있던 빨간 모자가 훌렁 벗겨지더니 강아지가 멈추는 거야. 선생님은 끝까지 노란 모자 고양이를 잡으려고 뛰었지.

3단계: 색깔 대 동물

그래서 선생님은 그 노란 고양이를 잡으러 뛰기 시작했지. 그런데 모퉁이를 들자마자 고양이가 사라져 버린거야. 알고 보니 그 노란 모자를 쓴 고양이가 파란색 차 밑으로 숨어 버린 거야. 노란 모자가 검은색 바퀴 사이로 보였거든. 그래서 고양이를 잡으려고 흰 막대기를 하나 주워 왔지. 그리고는 유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지. "고양아. 고양이. 그러지 말고 이리 나오렴. 아이구 착하지 고양이". 허리를 숙여서 차 밑을 보니까 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쥐새끼 한 마리가 짹짹하고 있는 거야, 그 쥐는 정말 운도 없지. 대낮에 갑자기 고양이를 만났으니 말이야. 그런데 그 쥐도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무지개색 모자를 자세히 보니까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쥐 한 마리가 또 있네? 그 쥐도 역시 무지개 색깔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빨대를 입에 물고 있더라구. 그런데 그 빨대가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인 거야.

청기, 백기를 올려라			
활동목적	청각운동협응력과 청각주의력을 높인다.		
진행방법	<p>① 참가자의 왼손에는 청기를, 오른손에는 백기를 들게 한다.</p> <p>② 지도자는 청기백기 지시문에 지시대로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은 구호에 따라 청기 혹은 백기를 올리고 내린다.</p> <p>③ 단, "시몬 가라사대"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청기백기를 움직이지 않는다.</p>		
	청기백기 지시문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1) 청기 올려 2) 백기 올려 3)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4) 백기 내려 5)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올려 6) 청기 올려 7) 백기 내리지 마 8) 청기 올려 9)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10) 백지 올려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11) 백기 올려 12) 청기 올려 13)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14) 청기 올려 15)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올려 16) 백기 내려 17) 백기 내리지 마 18) 청기 올려 19)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20) 청기 올려 </td> </tr> </table>	1) 청기 올려 2) 백기 올려 3)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4) 백기 내려 5)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올려 6) 청기 올려 7) 백기 내리지 마 8) 청기 올려 9)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10) 백지 올려	11) 백기 올려 12) 청기 올려 13)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14) 청기 올려 15)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올려 16) 백기 내려 17) 백기 내리지 마 18) 청기 올려 19)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20) 청기 올려
1) 청기 올려 2) 백기 올려 3)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4) 백기 내려 5)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올려 6) 청기 올려 7) 백기 내리지 마 8) 청기 올려 9)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10) 백지 올려	11) 백기 올려 12) 청기 올려 13)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14) 청기 올려 15)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올려 16) 백기 내려 17) 백기 내리지 마 18) 청기 올려 19)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20) 청기 올려		
활동자료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21)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22) 백기 올려 23) 백기 올려 24)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25) 청기 올려 25)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26) 백기 올려 27)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28) 백기 올려 29) 청기 올려 30)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31) 시몬가라사대 청기 올려 32)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33) 시몬가라사대 백기 올려 34) 청기 내려 35) 백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40) 시몬가라사대 청기 올리지마 41) 백기 올려 42)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43) 시몬가라사대 백기 올리지마 44) 청기 올려 45) 시몬가라사대 백기 올려 </td> </tr> </table>	21)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22) 백기 올려 23) 백기 올려 24)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25) 청기 올려 25)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26) 백기 올려 27)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28) 백기 올려 29) 청기 올려 30)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31) 시몬가라사대 청기 올려 32)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33) 시몬가라사대 백기 올려 34) 청기 내려 35) 백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40) 시몬가라사대 청기 올리지마 41) 백기 올려 42)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43) 시몬가라사대 백기 올리지마 44) 청기 올려 45) 시몬가라사대 백기 올려
21)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22) 백기 올려 23) 백기 올려 24)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25) 청기 올려 25)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26) 백기 올려 27)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28) 백기 올려 29) 청기 올려 30)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31) 시몬가라사대 청기 올려 32)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33) 시몬가라사대 백기 올려 34) 청기 내려 35) 백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40) 시몬가라사대 청기 올리지마 41) 백기 올려 42)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43) 시몬가라사대 백기 올리지마 44) 청기 올려 45) 시몬가라사대 백기 올려		

★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마치며... ★

이 름:

- ▶ 총 10회기의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회기가 있다면?
- ▶ 청각집중력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변화된 내 모습은 무엇인가요?
- ▶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히 배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 청각집중력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소감을 적어 봅시다.

소감문

김 O O	재미있었고 즐거웠다. 다음에는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박 O O	집중력 수업을 계속 하면 아마도 집중력은 대단해 질 것 같다.
이 O O	느낀점도 많고 집중력도 매우 향상된 것 같다.
문 O O	재미있었다. 특히 집중송 부를때가 제일 좋다.
이 O O	선생님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넘 재밌다.
성 O O	특히 가라사대가 재미있었다.
김 O O	재미있었고 집중력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윤 O O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계속하니 재미있다.
김 O O	재미있고 즐겁다. 토끼와 거북이 게임 할 때가 제일 좋았다.
성 O O	시험성적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 집중력이 높아진 것 같다.
박 O O	문제를 풀 때 어려웠다. 조금 쉬웠으면 좋겠다.
민 O O	일기예보 할때가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박 O O	집중력이 높아져서 공부가 잘 된다.
강 O O	여러 가지를 하였는데 뭔가 발전이 있는 것 같다. 재미도 있다.
김 O O	5단계 생각법을 배우기가 가장 재미있었다.
유 O O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할 것이다.
강 O O	정말 재미있었고 가라사대가 가장 재미있었다.
이 O O	물건 이름 기억하기 할 때 기억하지 못해서 아쉽다.
김 O O	빨강과 노랑, 강아지와 고양이 게임을 하는데 무척 재미있었다.
김 O O	다음에는 더 좋은 집중력 게임 테스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박 O O	즐거웠다. 그리고 게임을 많이해서 Fun
김 O O	색칠하기, 물건기억하기, 집중송 등 많은 것들을 배워서 좋다.
김 O O	열고개 넘기와 설명과 다른 단어 찾기, 청기백기 게임이 재밌다
이 O O	게임도 많이 하고 물건 기억하기를 한 게 재미있었다.
현 O O	토끼와 거북이 놀이를 했고 재밌다. 딱히 어렵지 않았다.
고 O O	재미없지 않고 즐거웠다. 엄마 말처럼 도움이 된 것 같다.
김 O O	집중력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저번보다 확실히 나아진것 같다.

감사의 글

제가 상담공부와 논문을 하면서 저에게 격려와 사랑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조언을 주시고 상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박태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상하게 챙겨주시고 저를 믿어주신 박태수 교수님이 계셨기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허철수 교수님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주신 김성봉 교수님, 늘 밝은 미소로 재치 있는 웃음을 주셨던 박정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시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저희 아버지와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격려와 조언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또한 늘 밝은 마음으로 용기를 준 남동생,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었던 형부,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힘이 되어준 언니, 늘 환한 미소로 기쁨과 웃음을 주었던 두 조카 하민이와 지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사랑을 주신 외할머니와 큰어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가까이에서 저의 많은 부분을 공유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준 최정호 선생님,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주셨던 홍관수 선생님, 그 동안 서로 도와가며 보람을 함께 나누었던 석사과정 16기 동기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16기 동기들이 있었기에 제가 논문을 쓸 수 있었고, 대학원 생활을 편안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늘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주셨던 최범석 회장님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급은 못했지만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0. 7

김현정 드림